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5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안전산업 포럼’에 참석하여 해양안전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인사를 만나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해양산업 분야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친환경선박 도입 등으로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양안전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관, 업계, 학계 여러분들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주인공이라 생각된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인수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정소희 (044-200-5857)